

추석 가정예배

예배부름 인 도 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 송 ...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보호해주심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정을 향한 주님의 큰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이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내고 다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다 같 이

성경봉독 시편 128:1~6 말 은 이

말 씬 노래할 수 있는 은혜 말 은 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각자 열심히 일상을 살고, 명절에 모인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추석에 열매를 추수하듯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일상의 보상이지만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로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②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3절의 말씀은 특별히 가족을 서로 다른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열매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함께 둘러앉을 때 삶과 신앙 속에 맺어진 다양한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다채롭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그 다채로운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서로 축복하며, 감사하는 이번 명절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비록 이번엔 나누는 은혜가 적을지라도, 먼저 열매 맺은 가족들을 보며 더 큰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의 종류가 다르듯이 준비의 시간이 다를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열매가 적을지라도 먼저 열매 맺은 가족들을 보며, 언젠가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③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질곡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의 회복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우리 가정에 주실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 거하면, 앞으로의 우리 가정의 앞길에도 평화를 약속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은혜, 함께 나누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이 모든 은혜가 기쁨의 노래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의 모임도 이 시편과 같이 그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 송 ...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

담임목사 강용규
Rev. Kang Yongkyu